‘수주 목표 조기달성’ 조선 빅3, 친환경 기술 확보 고삐

한국·대우조선, 목표치 초과
차세대 그린쉽 기술 경쟁력 강화

삼성重, 수주 목표 상향 조정
자율운항 충돌 회피 기술 실증

현대중공업그룹이 개발 중인 액화수소운반선의 개념도

최근 몇년간 수주 가뭄을 겪은 국내 조선업계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국내 조선 빅3사는 친환경 선박 건조 기술력 앞세워 올해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글로벌 수주 물량을 휩쓸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는 지난 16일 삼성중공업을 마지막으로 올해 수주 목표를 달성했다. 이젠 경쟁 업체와 차별화를 위해 차세대 기술력을 선보이며 미래 시장 선점에 나서는 등 그동안의 위기를 털어내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4일 기준 194억달러어치(201척)를 수주하며 올 수주 목표치 149억달러의 130%를 달성했다.

대우조선해양도 80억4000만달러(46척)를 수주하며 연간 수주 목표액인 77억달러 대비 104%를 달성했다. 삼성중공업도 78억달러(60척)를 거둬들이며 올 목표치의 86%를 넘어섰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시황 개선 전망에 따라 연간 수주 목표를 78억달러에서 91억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기존 목표대로라면 삼성중공업도 수주 목표치를 달성한 셈이다.

삼성중공업은 러시아에서 쇄빙 셔틀탱커 7척, 내빙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6척 등에 대한 수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계약이 체결될 경우 삼성중공업도 수주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막판 수주에도 수주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100억달러, 삼성중공업은 55억달러, 대우조선해양은 53억7000만달러를 거둬들였다. 수주목표 달성률은 각각 91%, 65%, 75%였다.

국내 조선업계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친환경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세계 선박 시장 시황이 고부가·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1일부터 23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가스텍 2021’에 참가해 이산화탄소(CO2), 수소, 암모니아 등 차세대 그린십(Green Ship) 기술력을 대거 선보였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번 전시회에서 LNG선, LPG선 등 가스선의 축소모델을 전시하고 자체 개발한 차세대 선박 기술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현대중공업그룹 조선3사는 ▲대형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액화수소 화물운영시스템 ▲대형 암모니아추진·운반선 ▲중소형 LNG FSRU(부유식 가스 저장, 재기화 설비) 등에 대한 선급 및 기국의 기본인증을 획득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번 행사에서 영국 로이드선급과 업무협약(MOU)를 맺고 사이버 공간에서 선박을 구현하는 디지털트윈 선박 솔루션(HiDTS)을 설계, 시운전, 운항 단계까지 상용화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친환경 선박은 물론 자율운항 선박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 선박 간 충돌을 자동으로 회피하는 기술을 실증했다. 삼성중공업은 세계 최초로 실제 해상에서 각자의 목적지로 자율 운항하는 두 척의 선박이 서로를 인지해 자동으로 회피하는 기술 실증에 성공했다.

이들 선박은 삼성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자율항해 시스템인 ‘SAS’를 탑재해 자율운항 선박간 충돌회피, ‘ㄹ’자 형태의 다중 경유점 경로제어를 시연했다. 삼성중공업은 2022년 SAS의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이에어코리아와 공동으로 엔진 배기가스 내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며 친환경 선박 수주 경쟁력을 강화했다.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은 2050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암모니아수를 이용해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습식 포집공정’과 ‘광물탄산화기술’로 장치 규모에 따라 흡수량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으며 흡수제는 재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친환경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메이저 선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게임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엔씨소프트, 상생경영 행보

지스타 인디 쇼케이스 등 지원 이어
인디크래프트·BIC도 후원 잇따라

엔씨소프트 R&D 센터.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가 인디게임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으로 게임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업계 상생에 나서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올 5월에 진행된 ‘2021 인디크래프트 온라인 가상게임쇼’를 포함해 현재 온라인 행사를 진행 중인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BIC) 2021’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다.

인디크래프트와 BIC는 국내 인디게임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 행사다. 인디크래프트는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산업진흥원,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글로벌 인디 게임 공모전이다. BIC는 올해 7회를 맞이한 글로벌 인디 게임 축제로,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오프라인 행사에는 전 세계 27개국의 121개의 작품을 소개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후원의 연속성이다. 엔씨소프트는 ‘인디크래프트’ 행사가 출범한 2019년부터 후원을 이어왔고, BIC는 작년부터 지원하며 업계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국내 대규모 게임 기업인 ‘3N’ 중 BIC를 후원하는 건 엔씨소프트가 유일하다. 특히, 최근 행사 제한 등 오프라인 개최와 후원사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유의미한 행동이라는 평가다.

또 엔씨소프트는 2017년부터 4년 연속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에 인디 게임사와 중소기업, 아카데미 지원을 위한 인디 쇼케이스 지원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작년 열린 지스타에서는 엔씨소프트의 지원으로 인디 게임사 및 중소기업 58개사가 참가해 게임 홍보 기회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엔씨소프트는 국내 주요 게임쇼 중 하나인 ‘플레이엑스포’를 지원하는 등 업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게임 업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게임이 대한민국 대표 문화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준혁 기자 junhyuk@